

미국흰불나방에 가로수 고사…황폐화된 광주천변길

집단 발생 유충 잎 갉아먹어…광주천·승촌보 등 1800여 그루 피해
산책하던 시민들에 벌레 떨어져 기겁도…지자체 방제 등 대책 시급

‘가로수 길러’로 불리는 미국흰불나방 유충 피해가 광주 주요 하천인 광주천과 영산강 승촌보 일대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후 등 영향으로 광주에서 미국흰불나방 유충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가로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광주환경공단 등은 피해 현황 집계, 방제 작업도 제멋대로 하고 있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광주환경공단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현재 광주천 일대 가로수에서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집단 발생하고 있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 해충으로, 몸길이 3여cm에 검은색과 흰색의 긴 털이 몸에 뽁뽁이 나 있는 모습이다.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100~150cm의 잎을 갉아먹는데, 대량 발생 시 활엽수에 피해를 입혀 심할 경우 나무를 죽게 만든다.

이날 광주천 설월교-남광교 구간(1.2km)을 걸어보니, 나무 두 그루 중 한 그루 꼴로 잎이 거의 사라지고 잎맥만 남는 등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애벌레에게 점령당한 나무는 가지마다 거미줄같은 실이 얽혀 있고 노랗게 말라죽어 있는 모습이었다.

교각 아래 가동에도 유충이 수백 마리씩 붙어 있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소름끼친다”며 발걸음을 급하게 돌리기도 했다.

광주천변에서 노인 일자리 활동을 마치고 동료들과 산책을 하고 있던 이학임(77)씨는 “등에 벌레가 떨어져 깜짝 놀랐다. 간지럽고 소름이 돋았다”며 “순간 놀라 넘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송순임(78)씨도 “몸에 붙으면 간지럽고, 벽에도 붙어 있고 벌레 배설물이 떨어져 바닥이 시커매했다”고 덧붙였다.

주책가 나무까지도 감나무를 중심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백운2동 주택가에



서구 천변좌로 인근 나무 잎이 미국흰불나방이 갉아먹은 뒤 잎맥만 남아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

미국흰불나방이 번지고 있다. 아이들이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는 영산강을 타고 올라가 남구 승촌동의 승촌보 파크골프장에도 발생했다. 승촌보 입구부터 가지마다 거미줄같은 실이 주렁주렁 달린 채 노랗게 말라 죽은 나무들이 잇따라 눈에 띄었으며, 파크골프장 일대 나무 세 그루 중 한 그루 꼴로 유충들이 바글거리고 있었다.

파크골프장을 찾은 한연서(65)씨는 “날이 좋아서 골프 치러 왔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 못 하겠다. 머리 위로 떨어질 정도”라며 “약을 뿌려서라도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자(69)씨는 “나무 밑에도, 홀 주변에도 벌레가 많아 골프채로 없애보지만 소용이 없다”며 “공원에 벌레가 기어다녀 혐오감이 들고, 밖에서 간식



12일 광주시 남구 사동과 동구 불로동 일대 광주천 부동교 인근 수목들에 미국흰불나방 유충들이 둘러붙어 말라 비틀어져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도 마음껏 못 먹겠다”고 불평을 호소했다.

미국흰불나방 유충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는 추세다. 보통 5~6월(1화기)과 7~8월(2화기)로 연2회 발생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가을 날씨가 더워지면서 3화기까지 발생하면서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파악 중인 피해 가로수는 남구 8그루, 북구 1800여그루 등이지만, 이마저도 정확히 집계한 것이 아니라 광주천 일대에 대해 어림잡작한 수준이라 실제 피해량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 심각한 광주천의 경우 광주환경공단과 4개 자치구(동·서·남·북구)가 구간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구간의 피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기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각

자치구 입장이다.

가로수 관리 주체들은 방제 작업 주체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였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여름철 위주로 연 3회 방제 작업을 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올해는 광주 전체 가로수 16만 3000여그루 중 1만3000여그루에 대해서만 방제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 광주공원, 사직공원, 평화공원 3곳을 대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 3회가량 방제를 실시하고 있어 공원 내에서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천 내에서 매주 2회 방제 작업을 실시 중이나, 과거 공단이 광주천을 인수할 당시 담당했던 나무 3800여그루만을 대상으로만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나무 등은 자신들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 주체라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주책까지 피해가 번진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단 등 모두 “민간 소유 주택은 방제하기 어렵다. 집주인이 알아서 방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유충이 이동하면서 나무를 갉아먹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매년 피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공단 등이 책임 있는 자세로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매년 3~4회정도 정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추석 연휴전에도 1회 실시했지만 수목 피해와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든 우려했다”며 “우선 오는 14일까지 추가 방제를 실시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유심 교체하러 타지역 가야 하는 신안 군민 “너무 불편해”

통신 3사 대리점 없어

몇 시간 걸려 목포로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지역 대리점 등을 통해 무료 유심(USIM) 교체가 이뤄졌지만 신안 지역민들은 유심 교체 대리점이 없어 몇 시간이 넘게 걸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안은 SK 텔레콤 대리점이 없어 피해가 입자가 유심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은 전국 5개 지자체 중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은 통신 3사 대리점이 모두 없는 지역으로, 유사한 해킹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주민 3만 8900여 명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신안군 자은도에 거주하는 김대현씨는 “암페면에 휴대폰 판매점 한 곳이 있어 차를 타고 30분을 가거나 1시간 걸려 목포로 가야 휴대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65·신안군 하의도)씨는 “마을 주민들

이 유심칩을 바꾸기 위해 2시간 배를 타고 목포까지 가야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당시 목포 대리점에서 신안군 자은면으로 출장 서비스를 나가 일부 주민들의 유심 교체를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교체를 못한 주민들은 1~2시간 걸리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도록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역별 차별로 인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갑질 호소’ 대학원생 사망 3개월 수사 지지부진

전남대 진상조사위도 미적

전남대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광주일보 7월 17일자 6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도 사고 직후부터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여태껏 진상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8일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40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 대학원생 B(24)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갑질’을 했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지도교수에게 이같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숨진 지 3개월이 되도록 A씨에 대해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을 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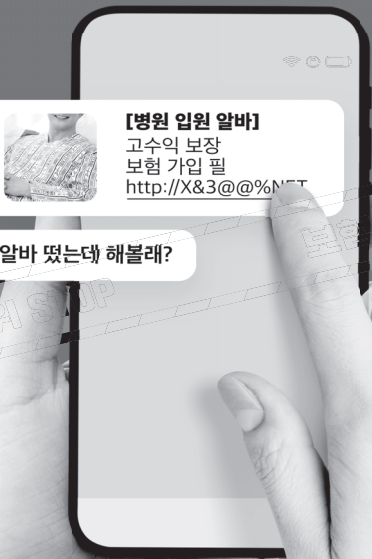
경찰은 또 다른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 30대 C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연구실 태블릿 PC 등을 포렌식 검사를 거쳐 통화 내역과 녹음 등 총 180GB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B씨가 피해를 호소한 점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15건이 넘는 등 처리할 다른 사건이 많다”며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는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지만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